부자가 6년 더 산다…광주·전남 기대수명 81세

2015년 기준 전국 82.1세…남성 79세·여성 85.2세

소득 상위 20% 85.14세…하위 20% 78.55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2.1세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에 따라 편차가 뚜렷한 '수명 양극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의료시설이 밀집한 서울의 기대수명이 83.0세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1세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6.2세 오래 사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분위별 기대수명이 상위 20%의 경우 85.14세, 하위 20%는 78.55세로 최대 6.59세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5년인 전 6.10세(상위 83.54세, 하위 77.44세)보다 뚜렷해졌다.

지역별 기대수명(2014년, 3년 주기 조사)은 서울이 83.0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기 82.2세, 제주 82.1세, 대전 82세, 인천·광주·대구·전북이 81.4세, 전남은 81.2세였다.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80.7세로, 가장 높은 서울과 약 2.3세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 기대수명과 달리 지역별 편차는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기대수명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81.1세의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78.4세의 부산으로 두 지역 간 약 2.7세의 편차를 보였으나 다음 조사 시기인 2011년에는 서울 82.0세, 경북 79.6세로 약 2.4세의 편차를 보인 것이다.

기대수명 증가율은 전북과 부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전북과 부산의 기대수명은 각각 78.8세, 78.4세였으나 2014년에는 각각 81.4세, 81.0세로 약 2.6세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로 2008년 80.7세에서 2014년 82.1세로 약 1.4세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2008년 81.1세에서 2014년 83.0세로 약 1.9세 증가해 제주 다음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기대수명은 지난 2008년 79.4세, 2011년 80.2세, 2014년 81.4세로 6년 사이 2세 늘었다. 전남은 2008년 78.7세, 2011년 79.7세, 2014년 81.2세로 이 기간 2.5세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술 발달 등의 영향으로 기대수명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는 점점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수명 양극화'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85.2)은 OECD 주요국가 중 일본(87.1), 스페인(85.8), 프랑스(85.5)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의 전쟁 2천여곳 5년간 채용 전수조사

연루자 중징계·인사청탁자 신분 공개·채용 당사자 퇴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서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리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인사비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인사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되면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사대상을 최종 집계한 결과 ▲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330개 ▲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824곳 ▲ 공직 유관단체 1089개로 파악됐다.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공시에 목숨 거는 이유 있었네

민간기업보다 퇴직때까지 기대소득 7억8천만원 많아

갈수록 많은 취업준비생이 7·9급 공무원을 포함한 이른바 '공시'(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만약 합격하면 민간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누계소득(퇴직까지)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재학 중 7·9급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8058만 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비교 대상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우열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7억8058만 원이나 많고,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756만 원이 많지만,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는 3억3605만 원 누계 소득이 적었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평생 소득이 일반 민간기업 중견·중소업체 취업자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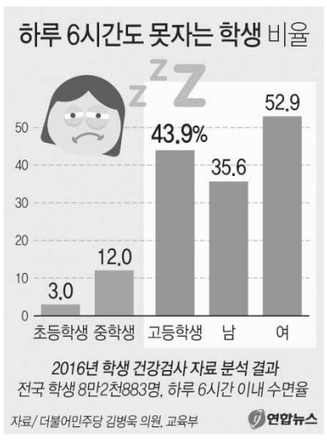
광주·전남 고교생 10명 중 4명

하루 6시간도 못잔다

이틀에 한번 꼴…전국 평균보다 많아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은 이틀에 한번 꼴로 하루 6시간 미만의 잠을 자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면의 양이 전국 고등학생 평균치보다 적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배포한 '2016년 학생 건강검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생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43.91%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광주지역 47.10%, 전남지역 46.02%로 각각 전국 평균보다 각각 3.19%, 2.11%포인트 높았다. 잠을 적게 자는 광주·전남지역 고등학생이 전국 평균보다 많다는 의미다.

고등학생 중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수면양이 더 적었다. 광주는 남학생 40.05%, 여학생 54.65%, 전남은 남학생 37.53%, 여학생 55.34%다.

또 전남지역 남자 초등학생의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9.93%로 전국 평균 3.30%의 3배나 됐다.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63.14%, 중학생 78.19%, 고등학생 80.65%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67.16%, 중학생 75.11%, 고등학생 76.22%로 집계됐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패스트푸드 섭취를 많이 한 것이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광주가 초등학생 4.82%, 중학생 17.34%, 고등학생 17.11%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5.66%, 중학생 13.24%, 고등학생 15.97%로 조사됐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광주가 초등학생 55.78%, 중학생 41.00%, 고등학생 23.89%이고, 전남은 초등학생 50.03%, 중학생 36.24%, 고등학생 24.03%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운동량이 적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에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은 물론 학업 성적과 주의력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에 무리한 야간자율학습이나 의무적 0교시 운영 등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정숙 여사와 이희호 여사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사랑나누기바자회 한마당에 참석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새 헌재소장에 이진성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이진성(사진)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이수(65·9기) 재판관의 다음 서열인 이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장기간 인사 문제로 흔들렸던 헌재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재판관은 내년 9월 김이수, 강일원(58·14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재판관과 함께 같은 날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이 중 김이수·강일원·안창호 재판관은 국회,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다.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재판관 지명권이 없는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이나 국회에서 재판관으로 정한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골라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

부동산 투자!
▪법적보장(소유권/근저당 등)
▪연 30% 이상 순수익 가능
▪경매노하우 10년
문의 H.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 순례
이순신해상순례
www.knnews.co.kr
www.이순신해상순례.kr
제9회
심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2017년 11월 18일(토)
오전 8시 ~ 오후 5시
참가비 무료
도시락, 음료, 간식, 기념품 및 리플렛 등 당일 필요 물품 무료제공 참가비 없음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해역을 우리 군함을 타고 순례하는 전국의 참가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남해안 천혜의 절경도 감상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상 : 전 국민, 초등학생 이상 300명
※ 8회 참가자 제외
◇신청마감 : 2017년 11월 2일(목)까지
[· 공식홈페이지 www.이순신해상순례.kr
· 경남신문홈페이지 www.knnews.co.kr]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선정 : 신청자 대상 추첨 선정 (지역별, 가족 · 단체별 고려, 인원초과 시 예비후보 선정)
※선정자 추후 경남신문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처 : 055)210-6102 ~ 4
행정 : 독도함
경남신문
(사)글로벌이순신연구회

2018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 [주1~2회, PM 7~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운영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입학원서 작성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7. 11. 6.(월) ~ 2017. 11. 20.(월) 09:00~18:00
전 형 일		2017. 12. 5.(화) 10:00~
합격자발표		2017. 12. 21.(목) 11: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외식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전자컴퓨터공학(계약학과)
■ 문 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DUSTRY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